

SPORTS 광주FC, 제주 잡고 중위권 재탈환 나선다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프로축구 광주FC가 순위 반등을 위한 승점 사냥에 나선다.

광주FC는 18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9라운드 제주SK FC와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앞서 광주는 지난 13일 서울과의 경기에서 1-3으로 패배, 6승 6무 6패로 승점 24점을 유지하며 리그 8위로 하락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서울전 5연승을 달렸던 광주는 당초 6연승을 노렸으나 상대의 맹공을 막지 못한 채 경기를 내줬다. 승리가 목마른 광주로선 뼈아픈 패배였다. 특히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 광주는 서울전 3실점 패배로 최소 실점 2위였던 명성까지 흔들렸다.

그 결과 광주는 리그 최상위권(1위 전북현대모터스 승점 38·2위 대전하나시티즌 승점 32·3위를 선두FC 승점 29)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근소한 차이에 있었던 4위 김천삼우FC(승점 28)와 5위 포항스틸러스(승점 28) 또한 달아났다.

현재 광주는 6위 FC서울(승점25)과 단 1점차다. 7위 FC안양(승점 24)과는 동률이나 득실차에서 밀려 8위가 됐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따낸다면 중위권을 재탈

오늘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서 맞대결
6승 6무 6패 승점 24 리그 8위...서울과 단 1점차

환하며 상위권을 추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광주는 바로 아래 순위(9위)인 제주를 상대로 사실상 '승점 6점'짜리 진검 승부를 펼칠 계획이다.

직전 서울전에서 광주는 김동화, 진시우, 홍용준 등 젊은 선수들을 대거 선발로 기용하며 몰려서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비록 아쉬운 패배를 당했지만, 점유율과 슈팅수 등 주요 지표에서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위기는 곧 기회다. 자신감을 얻은 어린 선수들은 강한 동기부여, 투지, 적극성을 바탕으로 이정효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의 열정은 베테랑 선수들까지 일깨우며 팀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다.

광주에서 주목할 선수는 단연 헤이스다. 헤이스는 직전 서울전 종료를 앞두고 포기하지 않는 추격골을 기록하며 5골로 팀 내 득점 선두에 올랐다. 지난 제주전에서 결승골과 함께 팀을 승리로 이끌

었던 헤이스는 친정팀을 상대로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상대인 제주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3연승 과정에서 총 6골을 수확하며 막강한 화력을 뽐내고 있다. 득점 루트도 다양해졌다. 이탈로(1골), 유인수(2골), 이창민(1골), 유리 조나탄(1골), 데닐손(1골) 등 1~3선에 걸쳐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더욱이 최근 대전하나시티즌으로부터 공격수 신상운을 영입하며 공세를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제주 원정에서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해서다. 이번 경기에서는 승점 3점을 무조건 따내겠다는 각오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제주를 꺾고 순위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하나은행 K리그1 2025 7라운드 제주 SK FC와의 경기에서 광주FC 헤이스가 드리블을 하고 있다.



'2025 월드 보치아컵' BC3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강선희(왼쪽 세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 월드 보치아컵' BC2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최아영(왼쪽 첫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보치아 강선희, 2025 월드 보치아컵 '금메달'

BC3 개인전 결승서 일본 4-2 제압
BC2 최아영, 홍콩에 6-0 석패 '은'

광주 소속 보치아 국가대표 강선희(한전kps)와 최아영(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이 국제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강선희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월드 보치아컵' BC3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일본 선수를 4-2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2022년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돼 항저우아시안게

임 복식 금메달, 파리패럴림픽 복식 은메달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왔던 강선희는 이날 우승으로 생애 첫 국제대회 개인전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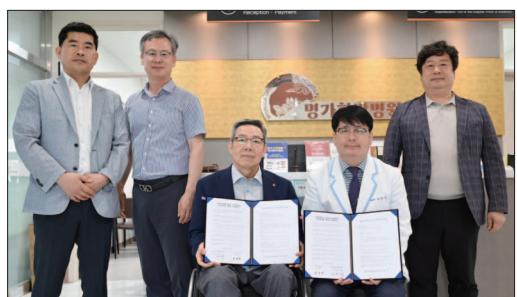
같은 광주 소속 최아영은 BC2 여자 개인전 4강에서 일본 선수를 8-1로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홍콩 선수에게 6-0으로 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했다. 올해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단 최아영은 지난 태극파타야 대회에 이어 또 한번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하며 BC2, BC3 여자 개인전 강자의 입지를 다졌다.

김서현 감독(광주장애인체육회 보치아 전문체육지도자)은 "국가대표의 체계적인 훈련과 광주

장애인체육회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남은 국내 선수권대회와 9월 서울에서 열린 월드 보치아컵에서도 좋은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 개개인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태극대회에 이어 보치아에서 연달아 좋은 소식이 전해 지고 있어 기쁘다"며 "대한민국 여자 보치아를 대표하는 두 선수가 더욱 빛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명가한방병원
도수치료 등 체육인 건강 증진 '맞손'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명가한방병원이 체육인 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17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명가한방병원에서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동석 명가한방병원 대표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명가한방병원을 임직원·가족 대상 도수치료 및 암·치매 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 상호 협력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본인 및 가족 진료비 부담금 30% 할인, 한약 30% 할인, 유전자 암·치매 검사 남성(11종)·여성(13종) 검사비 할인, 도수치료, DNA검사 할인 등이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명가한방병원에서 임직원들과 장애인 선수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폭 넓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돼 기쁘다"며 "양 기관이 상시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전남지역 장애인 일자리 확대 힘 모은다

도장애인체육회-한전MCS-한국장애인고용공단. MOU

전남도장애인체육회, 한전MCS(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과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성진 한전MCS 대표이사,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선수의 일자리 창출, 고용증진, 체육 활동 지원, 선수 발굴 및 대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한전MCS는 장애인 채용 분야를 확대하고, 올해 안에 약 30명의 장애인 체육선수를 채용해 이들의 체육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한전MCS(주)는 전남 지역 여러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지원과 위기 가구 발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기업"이라며 "앞으



로도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선수를 비롯해 전남지역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진 한전MCS 대표이사는 "ESG 선도경영 실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양희영, 여자골프 시즌 3번째 메이저 '2연패 도전'

KPMG 여자PGA 챔피언십 내일 개막
최혜진·황유민·김수지·방신실 등 출격

여자골프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PGA 챔피언십(총상금 1040만달러)이 19일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에서 개막한다.

앞서 열린 두 차례 메이저 대회에서는 세브른 챔피언십 사이고 마오(일본), US여자오픈 마야 스타르크(스웨덴)가 우승했다.

여자골프 메이저 대회는 1년에 5개가 열리며 KPMG 여자PGA 챔피언십은 올해 미국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메이저 대회다.

이외에 올해 남은 메이저 대회로는 7월 에비앙 챔피언십(프랑스)과 8월 AIG 여자오픈(영국)이 꼽히고 있다.

필즈랜치 이스트 코스(파72·6604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와 올해 앞서 '메이저 퀸'에 오른 사이고, 스타르크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한다.

'디펜딩 챔피언'은 양희영이다.

양희영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경점시를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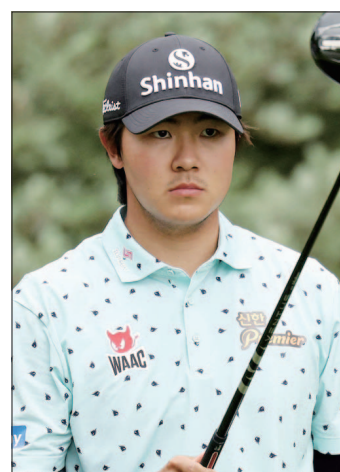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는 2월 혼다 타이랜드 공동 11위가 가장 높은 순위일 정도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작년 이 대회 정상에 오른 때도 이전 대회에서 '톱20'이 한 번도 없었다.

한국 선수로는 양희영 외에 전인지, 김세영, 박성현, 이미림, 김아림, 고진영, 유해란, 김효주, 윤이나, 임진희, 최혜진, 황유민, 김수지, 방신실, 이미향, 이소미, 이일희, 강혜지, 신지은, 안나빈, 주수빈, 이정은, 전지원, 이정은, 박금강 등 26명이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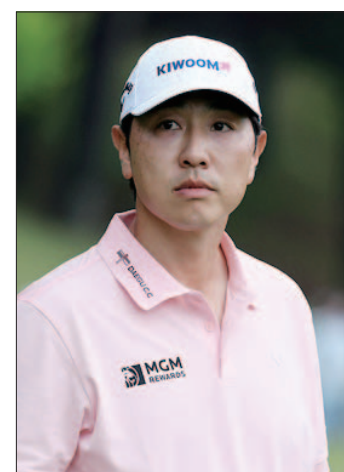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황유민, 김수지, 방신실이 세계 랭킹 상위권자 자격으로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다.

황유민과 김수지는 올해 US여자오픈에도 출전해 황유민이 공동 56위에 올랐고, 김수지는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올해 US여자오픈에서 공동 4위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 지난주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준우승하는 등 최근 상승세가 돋보이는 최혜진이 미국 무대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장식할 것인지도 관심 포인트다. 연합뉴스



김성현



배상문



전가람

KPGA선수권 내일 개막...김성현·배상문·전가람 출전

제68회 한국프로골프(KPGA) 선수권대회(총상금 16억원)가 19일부터 나흘간 경남 양산의 에이원CC(파71·7142야드)에서 열린다.

1958년 창설된 KPGA 선수권은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대회를 치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골프 대회다.

총상금 16억원은 KPGA 단독 주관 대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고 우승 상금도 3억2000만원에 이른다. KPGA 투어가 메이저 대회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지만, KPGA 선수권은 메이저급 대회로 손색이 없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정상급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먼저 2020년 이 대회 사상 최초로 월요 예선 통과 후 우승이라는 이변을 일으킨 김성현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나온다.

김성현은 미국프로골프(PGA) 2부 투어인 콘페리 투어에서 뛰고 있으며 올해 한 차례 우승을 차지해 2026년에는 PGA 정규 투어 복귀 가능성이 크다.

또 올해 DP 월드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민규와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가 주 무대인 송영환, 유럽과 아시안투어를 병행하는 왕정훈도 KPGA 선수권 타이틀에 도전장을 냈다.

PGA 투어 통산 2승의 배상문은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에 이어 올해는 우승을 노린다.

'디펜딩 챔피언' 전가람이 올해도 우승하면 1988년 최윤수 이후 37년 만에 KPGA 선수권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게 된다. 전가람은 올해 코요롱 한국오픈 공동 4위로 선전한 바 있다.

하나는행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 경쟁을 벌이다가 3위에 오른 최진호와 통산 상금 50억원 돌파에 도전하는 강경남도 지켜볼 선수들이다. 국내 통산 상금 47억9952만원을 번 강경남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박상현에 이어 2번째로 통산 상금 50억원을 넘긴다.

제네시스 포인트 1위 김백준과 상금 1위 이태훈이 이번 대회를 통해 개인 기록 1위를 더 단단히 만들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